

SKT, T 로밍쿠폰 50% 타임 세일

**- 오늘부터 3주간 바로 요금제 로밍 쿠폰 반값 할인… 1인당 2매까지 구매 가능**

**- 2027년까지 사용 가능 및 할인가격에 가족로밍 이용 시 압도적인 가성비 장점**

**- 바로 요금제 고객 대상 T 기내 와이파이 최대 무료, <클럽 T로밍> 혜택도 제공**

|  |
| --- |
| **엠바고 :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.** |

**[2025. 7. 24.]**

SK텔레콤(대표이사 CEO 유영상, [www.sktelecom.com)](http://www.sktelecom.com))이 휴가철을 맞아 로밍 쿠폰을 50% 할인가로 제공하는 ‘미리 준비하는 T로밍쿠폰 타임세일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.

이번 타임세일 프로모션은 오늘(24일)부터 8월 13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다. 바로(baro) 요금제의 총 4가지 데이터 용량 3GB(29,000원), 6GB(39,000원), 12GB(59,000원), 24GB(79,000원) 쿠폰을 50% 할인된 가격에 1인당 최대 2매까지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.

특히, 이번 할인 쿠폰은 2027년에도 사용할 수 있어 향후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. 쿠폰은 구매 후 1년 6개월 이내에 등록하면 되고, 사용 기한은 쿠폰 등록 후 1년까지다.

가족여행 고객은 할인가에 구매 후 3천원만 추가해 가족로밍에 가입하면 최대 5인까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 가성비가 뛰어나다. 예를 들어, 4인 가족이 6GB(39,000원) 쿠폰을 할인 구매 후 가족로밍 요금제에 가입하면 인당 약 5,625원에 로밍을 이용하는 셈이 된다.

가족로밍은 2023년 6월 출시 후 착한 요금제로 입소문이 나며 누적 이용 고객 300만명을 넘어섰으며, 전체 로밍 이용 가구 중 78%가 가족로밍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다.

T로밍쿠폰 타임세일 프로모션에 참가하고 싶은 고객은 T월드 앱 혹은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(<https://bit.ly/45gHvz2>)에 접속해 쿠폰을 구매할 수 있고, MMS로 전송된 쿠폰 번호를 T월드 앱에서 등록해 사용하면 된다.

바로 요금제 고객은 T 기내 와이파이도 무료 또는 할인가에 사용할 수 있다. 바로 요금제 3GB와 6GB 가입 고객은 T 기내 와이파이 20% 할인이 적용되며, 12GB 가입 고객은 50% 할인, 24GB 가입 고객은 무료로 2회까지 T 기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. T 기내 와이파이 할인 이벤트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.

SKT는 통신사 중 유일하게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중이며, 대한항공 일부 노선과 루프트한자항공, 에어캐나다, 에티하드항공에서 이용할 수 있다. 기존 기내 와이파이의 복잡한 이용 절차를 간소화해 항공사를 거치지 않고 T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가입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.

고객들은 T로밍 홈페이지 혹은 공항 로밍센터에서 본인 항공편의 와이파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.

이 외에도 바로 요금제 고객은 네이버페이 지급 이벤트와 로밍 고객 멤버십 <클럽T로밍> 혜택도 받을 수 있다.

바로 요금제 고객이라면 누구나 해외에서 네이버페이 해외 QR로 결제할 시 T로밍 1만원 할인 쿠폰과 네이버페이 1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12월 8일까지 진행된다.

T 멤버십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<클럽T로밍>은 바로 요금제 고객이 출국 전부터 출국 후에 걸쳐 1인당 5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. 출국 전 주요 혜택으로는 ▲바로 요금제 1GB 무료 충전권 ▲공항버스 K공항리무진 5천원 할인 ▲인천국제공항 마티나 골드라운지 50% 할인 등이 있으며, 해외 현지에서의 맛집 할인과 귀국 후 사용할 수 있는 ▲당근머니 5천원 증정 ▲다이소 직영점 5천원 할인 등이 있다.

바로 요금제는 전 세계 195개국에서 이용 가능한 SKT의 대표 로밍 요금제로, 해외에서 에이닷 전화앱 통한 바로 음성통화 및 문자를 무료로 제공한다. 만 34세 이하의 고객에게는 데이터 1GB를 추가 제공하며, 영(0) 청년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는 바로 요금제 상시 50%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. 바로 요금제는 2019년 4월 출시 후 누적 고객수가 1,921만명에 달하며, 2018년 12월에 출시한 바로 통화 이용자수는 2,200만명이다.

윤재웅 SKT 마케팅전략본부장은 “T로밍 바로 요금제는 출시 후 해외 여행객들에게 프리미엄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, 앞으로도 많은 고객들이 더욱 큰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 <끝>

**▶ 관련문의 : SK텔레콤 PR실 Biz PR팀 장효주 매니저 (02-6100-3836)**